

# 호우 피해 주민 돕기 '한마음'

### 익산시민, 개인차량 30대 동원 긴급 호송... 밥차·구호물품·도시락 지원 등 후원 쏟아져

익산시민들이 집중호우로 긴급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발 빠르게 앞장 섰다. 익산지역 주민들은 평균 320mm 기록적인 폭우로 긴급대피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안전하게 대피소로 임시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식사와 후원물품들을 지원했다.



대가 부입돼 재해구호물자 배분과 긴급이송을 도왔다.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운영한 총 28개소 대피소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단체 기업, 기관 등에서 식사제공, 인력 지원, 구호물품 후원 등 온정의 손길이 쏟아졌다.

우선 긴급하게 임시주거시설 마련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소를 지원했으며 개인승용차 30

산시자원봉사센터 밥차지원을 비롯해 합열음의용소방대, 용안면부녀회, 합열읍 추어탕 달인 식당, 신광교회, 본죽 등에서 지원해 큰 보탬이 되었다. 이 밖에도 119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구호키트 300개 모포 520개, 생수 120박스를 비롯해 적십자사, 완주군청 등에서 구호키트를 망성면 안성교회, 익산농협농가주부모임, 익산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두유, 과일, 과자 등 간식을 지원했다.

17일에는 익산을 함께 사랑하는 사 람들의 모임, 미륵산 라이온스클럽에서 참밥도시락 600인분을 파리마켓 동산점에서 빵 3,000개를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후원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18일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부서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충 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

## 혁신 발전 견인 위해 머리 맞대

### 군산시, 제22대 충선공약·국책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제22대 충선을 앞두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과 군산의 혁신 발전을 견인할 국책 사업 발굴을 위해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시는 18일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부서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충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소장들이 각 부서별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군산 발전을 견인할 국책 사업과 제22대 충선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굴된 충선공약은 △군산 생활SOC 연계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 19건에 4천억원 규모이며, 국책사업은 △새만금 수산식품산업 푸드테크 직점화 단지 조성사업 △전북 내륙~서해권 연계 국가철도망 구축 등 7건에 7333억원 규모다.

김미정 부시장은 "충선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군산 발전을 견인할 국책 사업과 제22대 충선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정식으로 문 열어

### 골목상권 파수꾼 역할 기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군산시는 18일 공동구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군산시 조촌로 213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시장을 비롯해 김영일 시의회 의장, 이훈구 전북 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물류센터 신축과 조합 이전 운영을 축하하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염원했다.

물류센터는 1만1,813㎡의 부지에 총면적 4,978㎡ 규모의 2개동(창고동·사무동) 시설로 상품 입고장 일반 창고



군산시 조촌로 213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개장식을 가졌다.

및 냉동·냉장 창고 등의 시설과 지게차 등 물류장비를 갖춰 운영 중이다. 개장식을 기점으로 물류센터는 공산품과 주류 위주의 상품 공급에서 벗어

나 야채·청과, 정육, 수산(냉동) 등의 1차 상품을 포함해 총 1만6천여종의 품목을 취급하게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다문화이주민+센터, 이용자 해마다 급증

익산시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을 위한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이용자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이용자는 올해 6월말 누적 1만1,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79명과 비교해 159% 증가했다.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확대되어 신규 입국자 증가가 되면서 센터 이용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센터는 익산시와 익산출입국센터,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지원팀, 익산노동자의집, 익산시가족센터 등이 함께 입주해 내·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수 부처 협업기관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특히 윈스톱 통합행정서비스와 함께 익산역 4층에 위치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이용민족도가 높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실시한 상반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점 5점 만점에 4.9점으로 대다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이용자는 "익산역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복합한 업무를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친절한 상담으로 감사한다" 등의 답변으로 센터 위치의 편리성 및 서비스 만족도를 높게 평가했다.

18일 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참여기관 간 협력을 위해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각 부처별 주요일정, 애로사항 공유 등 참여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용자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익산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백제무왕기 맥스FC 무에타이대회'와 KBA 3x3 KOREA TOUR 2023 익산대회'가 열려 약 1,500여명의 선수단 및 관광객이 익산을 방문했다.

익산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맥스FC 대회는 한국S 대만, 일본, 태국 국제전 3경기과 타이틀매치 2경기, 랭킹전

1경기 총 6경기로 12명의 국내의 최정상급 선수가 명승부를 펼쳤다.

52KG 여성밴텀급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최은지선수가 5라운드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85KG 슈퍼미들급 챔피언 잠정타이틀전에서는 장범석선수가 2라운드 KO승을 이끌었다. 랭킹전에서는 장준현 선수가 3라운드 판정승을 거뒀다.

한·대 국제전에서는 조정재선수가 2라운드 TKO승을 거뒀고, 한·일전에서는 김우승선수, 한·태전에서는 박형우선수가 각각 3라운드 판정승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맥스FC의 선수를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날 원광대 체육관에서 치러진 농구경기인 KBA 3x3 KOREA TOUR 2023 익산대회' 남자오픈부 결승전에서는 하잇익산이 '바스타'를 제치고 21-16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